

사업용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은경¹ · 이수란² · 김종대² · 손영우^{2*}

¹강원대학교 심리학과, ²연세대학교 심리학과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Stres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ercial Drivers'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CHUNG, Eun-Kyoung¹ · LEE, Suran² · KIM, Jong Dae · SOHN, Young Woo^{2*}

¹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24341, Korea

²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Abstract

In spite of the effort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of commercial vehicles, the number of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UI) of commercial drivers has been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tress coping style of commercial drivers on driving behaviors. Specifically,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role of life stress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tress coping style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1308 licensed commercial vehicle driver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life stress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blem focused strategies, wishful thinking strategies, passive avoidance strategies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ng drivers to change their stress coping styles would be helpful to inhibit them from being involved in drunken driving.

최근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상정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생활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총 1308명의 사업용운전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사업용운전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문제해결, 조력추구, 정서적 완화, 소망적 사고, 수동적 회피 5개 방식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문제해결, 소망적 사고, 수동적 회피 대처방식에서만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문제해결 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소망적 사고와 수동적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스트레스는 높았으며, 이것은 다시 음주문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운전자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Keywords

commercial vehicle drivers, driver education, life stress,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stress coping style
사업용운전자,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운전자 교육, 음주문제행동

* : Corresponding Author
ysohn@yonsei.ac.kr, Phone: +82-2-2123-2444, Fax: +82-2-2123-4919

Received 8 April 2015, Accepted 19 November 2015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연구 목적

최근 사업용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사업용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경찰청 사고자료(도로교통공단 통합 DB)에 의하면 사업용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전체 발생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99,244건, 2014년에는 48,62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용운전자의 음주운전관련 교통사고 및 적발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용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통계는 2011년에 3139명, 2012년 3111명, 2013년 3398명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는 최근 3년 동안 8.3% 증가된 수치이다(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DB, 2014).

이러한 사업용운전자의 음주관련 지표는 최근 4년 이내 최고 수준으로, 이는 각종 첨단 기계도입과 적극적인 사고예방시스템 도입이 전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음주운전 감소에는 별 다른 효과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기계적이거나 시스템적인 요인을 넘어서서 좀 더 심리생물학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Anderson, Ramo, and Brown, 2006; Colder, 2001)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는 개인변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하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음주운전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음주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의 성격, 음주에 대한 기본 인식(Park and Park, 2010a), 음주습관과 음주대처동기(Park and Park, 2010b) 등 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박동균과 박은미는 술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반응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여 음주 및 음주운전이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외적, 혹은 내적 요구나 자극을 다루어 가는 과정”(Lazarus and Folkman, 1984)이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나 문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반응하는가라는 개인의 대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인의 성격과 비슷한 개인내의 안정적 구조로 볼 수 있는데(Lee, 2002), 실제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격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개인의 특징이며, 개인마다 선호하는 대처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선호는 기질 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Carver, Scheider, and Weintraub, 1989).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어떤 개인의 고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비효과적이라면, 대처방식은 환경 즉 생활스트레스를 다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라면, 음주는 다시 해당 운전자의 직업 및 가정 생활에서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음주로 이어지는 역기능적인 싸이클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은(Lazarus and Folkman, 1984). 현재 많은 스트레스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Choi, 1986).

스트레스와 음주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일관되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Kim, 2007; Camatta and Nagoshi, 1995; Colder and Chassin, 1993; O'Hare and Sherre, 2000). 예를 들면, Colder(2001)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음주빈도를 보고하게 한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개인내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eslin, O'Keeffe, Burrell, Ratliff-Crain, and Baum, 1995; Park, Armeli, and Tennen, 2004). Park et al.(2004)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록지에 일주일동안 자신의 음주와 스트레스 요인을 비롯한 일상적 활동을 기

록하도록 하였는데,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적은 날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날에 참가자들은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계는 개인간 뿐 아니라 개인내에서도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가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음주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성격이 음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n, 1999; Cox, 1987; Levine, 1990)에서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음주동기를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학습이론과 긴장감소이론에서도 잘못된 신념체계와 스트레스에 대한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이 음주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brams and Niaura, 1987). 실제로 Capenter and Hasin(1999)는 알콜 중독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Anderson, Ramo, and Brown(2006)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알콜 및 약물중독의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생활사건 정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알콜 및 약물 사용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대처방식과 음주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생활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즉 개인 내적 변인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Figure 1과 같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사업용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308명이 참여하였으나 모든 문항을 한 점수로만 반응하거나 중간에 중단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총 123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참가자 중 남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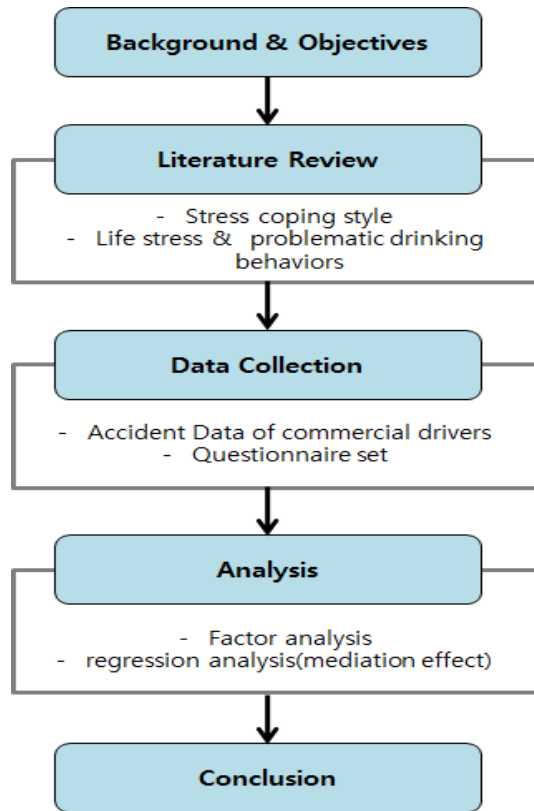


Figure 1. Study process

98.4%로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버스운전자 377명(30.5%), 택시운전자 698명(56.4%), 화물운전자 163명(13.2)%였다. 평균연령은 51.06세였으며, 운전경력 은 평균 139.28개월, 사고횟수는 평균 2.38회였다.

2. 측정 도구

1)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척도를 Park and Lee(1992)가 우리 실정에 맞는 문장으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ark and Lee(1992)의 연구에 의하면, 문제해결, 정서적 완화, 조력추구, 문제회피, 소망적 사고 등 5개 요인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유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는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정서적 완화는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 유발된 정서(분노, 짜증, 우울감 등)를 없애거나 완화하려는 전략이다. 조력추구는 문제해결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전략을 말한다. 문제 회피는 스트레스 유발 문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략이며, 마지막으로 소망적 사고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공상과 상상만을 하는 전략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93으로 상당히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그러나 Park and Lee(1992)의 연구에서 실시된 요인분석은 330명의 기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의 참가자와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트레스 및 음주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oper, Russell, Skinner, Frone, and Mudar, 1992). 아울러 Park and Lee(1992)가 제시한 요인구조에서는 비슷한 문항이 서로 다른 대처방식으로 묶여 있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에 대해 2차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2) 생활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 평가를 위해 기존의 생활사건척도 (Horowitz, Schaefer, Hiroto, Wilner, and Levin, 1977)와 생활경험조사설문지(Sarason, Johnson, and Siegel, 1978)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상기 두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활영역 중 학교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맞지 않는 분야를 제외하고 건강, 일, 거주, 가족 및 친구, 경제, 범죄 및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문항이 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크론바흐 알파값은 .78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신뢰도값을 보여주었다.

3) 음주문제행동

음주문제행동이란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이나 술을 마신 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Shin, 1999)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in(1999)가 제시한 3개 영역, 즉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을 기준으로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Kim et

al., 1995; Dawson, Grnt, and Harford, 1995; Midanik and Clark, 1995) 총 9개 문항을 제작하였다. 최종 음주문제행동 척도는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손상 2문항, 행동상의 문제 2문항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3문항 총 7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본 척도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835로 만족스러운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3. 분석방법

먼저, 사업용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으로는 주축 요인분석(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고 회전은 베리맥스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구조를 확정된 후에는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고,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 사업용운전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요인분석

본 연구의 목적인 대처방식과 음주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고유치(eigen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이 7개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7개 요인중 2개 요인은 하나의 문항만이(6요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7요인: “과거의 비슷한 경험에 의존한다”) 해당되어 의미가 없는 요인이었으므로 해당 문항은 이후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아울러 요인 부하량이 두 개 이상의 요인에 높게 나타나면서 그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분명하게 분류되지 못하는 문항이므로 해당 문항들도 삭제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요인분석에 포함된 문항은 29문항이었으며 요인구조 및 요인계수행렬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고유치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5개였으며, 5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22%를 설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22.47%를 설명하는 요인 1은 ‘활동계획을

Table 1. The factor analysis result for stress coping style with 39 items

No.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1	.646	.112	.139	-.032	.136	-.287	.128
2	.694	.137	.099	.108	.143	-.111	-.143
3	.723	.187	.065	-.044	.102	-.018	-.080
4	.668	-.011	.116	.010	-.057	.160	-.096
5	.693	.089	.204	-.110	.056	.053	.122
6	.516	.124	.201	-.067	.190	.119	.148
7	.720	.087	.155	.095	-.059	.091	.028
8	.670	.135	.202	-.148	.099	.118	-.013
9	.692	.139	.196	.055	-.166	.203	.091
10	.676	.156	.228	.047	-.128	.083	.188
11	.411	.191	.065	.148	-.034	.099	.413
12	.216	.160	.111	.085	.116	.156	.606
13	.649	.127	.273	-.126	.065	.184	.172
14	.629	.152	.245	.028	.054	.206	.201
15	.559	.200	.220	-.082	.155	.343	.175
16	.230	.148	.167	.025	.069	.708	.050
17	.236	.149	-.011	.059	.373	.453	.258
18	-.045	.078	.052	.415	.255	-.059	.334
19	.017	.024	-.052	.713	.009	.126	.021
20	.094	.165	-.081	.352	.519	-.001	.225
21	-.087	.036	-.003	.684	.065	-.026	.002
22	-.066	.009	.159	.283	.570	.155	-.010
23	.443	-.038	.340	.029	.033	.188	-.339
24	.387	.154	.268	.415	-.004	.062	-.143
25	.311	.155	.698	.079	-.006	-.010	-.038
26	-.103	.129	.190	.470	.261	-.113	.147
27	.221	.160	.629	-.074	.268	.107	.089
28	.321	.142	.678	.041	.134	.057	.149
29	.287	.193	.719	.010	-.013	.089	-.031
30	.297	.222	.641	.104	-.065	.061	.077
31	.316	.372	.322	.170	.182	.017	-.201
32	.336	.514	.205	-.015	.382	.025	-.025
33	.429	.393	.172	-.195	.372	.112	-.207
34	.233	.510	.096	-.088	.314	.248	-.269
35	.120	.525	.117	-.004	.132	.303	.026
36	.148	.649	.122	.188	-.076	.289	-.092
37	.174	.707	.131	.099	-.048	-.067	.159
38	.061	.760	.153	.044	.126	-.033	.167
39	.110	.685	.151	.098	-.009	-.019	.276
eigen value	11.16	3.00	1.77	1.56	1.27	1.19	1.00
variance (%)	28.61	7.67	4.55	3.99	3.24	3.04	2.57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등의 문제해결 요인이었으며 총 13문항이 해당되었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0.225%를 설명하였으며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한다’는 등의 조력추구 요인이며 총 5문항이 포함되었다. 전체 변량의 9.748%를 설명하는 요인 3은 ‘그 문제나 내 감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란다’는 등의 소망적 사고 4 문항이 해당되었다. 전체 변량의 6.112%를 설명하는 요인 4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

고 노력한다’는 등의 회피 중에서도 수동적 대처방식에 해당하는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수동적 회피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5.666%를 설명하는 요인 5는 ‘획기적인 기회를 갖거나 매우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한다’는 등의 회피전략이기는 하나 문제를 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문항들 3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정서적 완화에 해당하는 문항이므로 정

Table 2. The factor analysis result for stress coping style with 29 items

No.	factor1 (problem-focused coping)	factor2 (help-seeking)	factor3 (wishful-thinking)	factor4 (passive avoidance coping)	factor5 (emotional disengagement)
1	.620	.141	.124	-.048	.021
2	.665	.127	.071	.054	.107
3	.716	.073	.140	.100	-.023
4	.676	.086	-.037	.044	-.009
5	.711	.189	.076	.091	-.067
6	.548	.173	.069	.278	.028
7	.724	.156	.099	.024	.091
8	.674	.219	.059	.189	-.108
9	.704	.231	.165	-.008	.023
10	.682	.241	.167	-.012	-.012
13	.666	.239	.117	.155	-.090
14	.667	.231	.184	.113	.018
15	.609	.208	.175	.273	-.049
25	.306	.692	.132	.027	.020
27	.229	.647	.068	.282	.012
28	.341	.682	.145	.126	.061
29	.297	.731	.153	.096	-.026
30	.300	.660	.245	-.025	.043
36	.166	.137	.567	.275	.086
37	.176	.130	.773	.006	.073
38	.081	.144	.734	.260	.082
39	.127	.142	.776	.035	.102
22	-.052	.168	-.080	.530	.471
32	.329	.221	.396	.541	.024
34	.219	.080	.293	.646	-.065
35	.130	.116	.388	.537	-.030
19	.005	.019	.093	-.114	.715
20	.113	-.073	.180	.275	.569
21	-.087	.043	.044	-.045	.703
eigen value	9.318	2.528	1.443	1.393	1.042
variance(%)	22.473	10.224	9.748	6.112	5.666

서적 완화라고 명명하였다(Table 1)¹⁾.

요약하면, 하위 문항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5

개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문제해결, 조력추구, 정서적 완화, 소망적 사고, 수동적 회피가 해당된다.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

1)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숫자는 Table 1에 제시한 문항번호를 의미함)

- 요인 1(problem-focused coping): 1. 그 문제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2. 자신은 없지만 무엇인가 해 보려고 노력한다; 3. 인간적으로 변화 또는 성숙되도록 노력한다; 4.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5. 그 문제의 끝에 가서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6. 너무 서두르거나 예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7.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8. 긍지를 가지고 곳곳이 건디어 나간다; 9.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한다; 10.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13. 목표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풀리도록 노력한다; 14.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15. 그 문제로 인한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에 방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요인 2(help-seeking): 25. 그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한다; 27.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28. 그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 한다; 29.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30.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말한다.
- 요인 3(wishful-thinking): 36. 그 문제나 내 감정이 바뀌어지기를 바란다; 37.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38. 그 문제가 없어지거나 끝나기를 바란다; 39.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 요인 4(passive distancing): 22.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34.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32.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35.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 요인 5(tension-reduction): 19. 회기적인 기회를 갖거나 매우 위험부담이 큰 일을 한다; 20. 그 문제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21.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tress coping style,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s and life stress

Scale	problem focused	help-seeking	emotional disengagement	wishful thinking	passive avoidance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076*	.021	.048	.076*	.283**
life stress	-.095**	-.035	.045	.228**	.252**

*p < .05, **p < .01

석에서는 본 5개 요인들의 점수들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²⁾

먼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음주문제행동, 생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문제해결방식은 음주문제행동 및 생활스트레스와 유의미하게 부적인 관계를 보여 문제해결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음주 및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추구 대처방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생활스트레스는 예상대로 조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음주문제행동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사람들의 조언과 지지를 구하면서 음주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 소망적 사고와 수동적 회피 대처방식은 모두 음주문제행동 및 생활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어 음주문제행동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and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간접효과의 정상분포를 가정하지만 실제 회귀계수의 곱은 정적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검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례수가 200 이상 정도로 큰 경우에는 충분한 검증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 2014). 본 연구의 사례는 1308명으로 sobel test 결과가 충분한 검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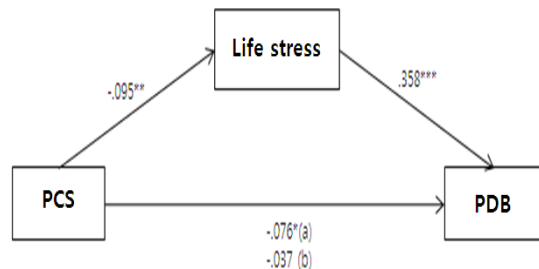


Figure 2. Mediation effect of lif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focused coping style(PCS)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PDB)
 (a) β that excluded life stress
 (b) β that included life stress (*p<.05, **p<.01, ***p<.001)

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Figure 2와 같이 문제해결 대처방식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며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는 .034였으며(-.095*.358)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 test: Z=-2.99, p<.001. 완전매개는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던 효과가 사라지고,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제해결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스트레스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생활스트레스를 낮추고, 생활스트레스가 낮아지면 다시 음주문제행동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력추구 대처방식에서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Figure 3를 살펴보면, 생활스트레스 투입 전에 .076으로 유의했던 독립변인(WTCS)과 종속변인(PDB)의 관계가 생활스트레스 투입 후에는 -.006으로 감소하여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과 음주문제행동 사이를 생활스트레스가 완전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간접효과의 크

2) 업종별 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Wilks Lamda = .988, p > .30)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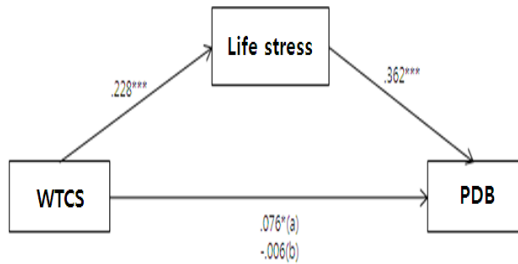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on effect of lif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ishful thinking coping style(WTCS)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PDB)

(a) β that excluded life stress

(b) β that included life stress(*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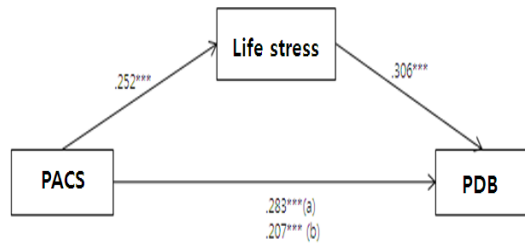


Figure 4. Mediation effect of life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ve avoidance coping style(PACS) and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PDB)

(a) β that excluded life stress

(b) β that included life stress(* $p < .05$, ** $p < .01$, *** $p < .001$)

기는 .082(.228* .362)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였다. Sobel test: $Z = 6.30, p < .001$. 즉 소망적 사고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스트레스는 증가하며 이것은 다시 음주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닷째,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에서는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마지막 수동적 회피 대처방식에서는 Figure 4와 같이 생활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Sobel test: $Z = 6.30, p < .001$. 부분매개는 매개변수 투입 이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수동적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고 이것이 음주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수동적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음주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생활스트레스를 매개로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처방식은 문제해결, 소망적 사고, 수동적 회피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대처전략을 적게 사용할수록, 그리고 소망적 사고와 수동적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이것이 음주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조력추구나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에서는 생활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는 사업용운전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음주문제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사업용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관리에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생활스트레스를 줄여 음주문제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소망적 사고와 수동적 회피 대처방식은 생활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음주문제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식의 영향력이 그 하위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성 관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과 가장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 Lazarus and Folkman(1986)은 대처방식을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로 나누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상태를 조절하고자 하는 대처로 자기조절,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 등이 포함된다. 문제중심적 전략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선택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회피적 행동이나 부정적 정서 전략이 증가하면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Endler and Parker, 1990; Lazarus and Folkman, 1984). 또한 Roth and Cohen(1986)은 대처방식을 접근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로 나누었는데, 접근적 대처는 스트레스원에 접근해 가는 인지적, 정서적 및 행동적 활동으로 정보를 추구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반면 회피적 대처는 스트레스 자극을 회피하거나 자극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처방식으로 당면문제를 부정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Terry and Hynes(1998)은 정서중심 대

처전략이 접근적 행동과 회피적 행동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하여 Roth와 Cohen의 분류와 Lazarus and Folkman(1986)의 분류를 통합하기도 하였다. 또한 Kim(1987)는 대처방식을 적극적 대처(긍정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부정적 대처)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학자에 따라 대처방식에 따라 다양한 분류를 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대처라는 것이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려는 노력 및 전략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노력이 투여되는 정도에 따라 상기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Choi, 2004). 실제로 상기 학자들의 분류를 노력의 투입도에 따라 정리해보면, 가장 노력이 많이 투여되는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모든 학자들이 긍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꼽고 있다. 사회적 지지추구는 Roth와 Cohen의 분류에 따르면 접근적 전략이나 Lazarus와 Folkman의 분류에 따르면 정서지향적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해결만큼 많은 노력이 투여되지는 않는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완화는 주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자하는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이기는 하나 회피적 및 정서지향적 대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동적 회피와 소망적 사고는 모두 정서지향적, 회피적,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노력이 가장 덜 들어가는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성을 성격 및 정신병리 척도와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들(Carver et al., 1989; Jelinek and Morf, 1995; Kardum, Hudek-Knezevic, 1996; MaCrae and Costa, 1986; Vollrath, Torgren, and Alnas, 1995)은 대개 문제해결 대처방식은 긍정적인 특성들과 회피는 부정적인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력추구와 정서적 완화 대처방식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상기 두 대처방식의 효과성이 아주 분명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즉 효과의 방향성이 매우 분명한 문제해결(긍정적 영향), 수동적 회피와 소망적 사고(부정적 영향)만이 생활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음주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문제행동을 비롯한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운전자들을 교육하고 치료하는데 함의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음주운전을 직접 측정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업용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운전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운수업체 관리자들은 운전자의 스트레스가 음주의 원인이 되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보다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해 교육하고,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전략이나 소망적 사고전략은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인분석, 가용한 대안 설정, 대안 평가, 실천 전략 등 문제해결 전략의 습득 및 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특별검사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음주운전형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단순히 술을 마지 말라는 '음주'에 초점을 둔 교육보다는 음주를 유발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잘못된 스트레스 대처전략 수정 및 건강한 대처전략의 습득을 훈련하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사업용운전자들의 생활스트레스를 줄여 음주문제행동 및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Abrams D. B., Niaura R. 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T. Blane and K.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Anderson K. G., Ramo D. E., Brown S. A. (2006), Life Stress, Coping and Comorbid Youth: An Examination of the Stress-Vulnerability Model for Substance Use,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38, 255-262.
- Baron R. M.,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
- Bolger N., Schilling E. A. (1991), Personality and the Problems of Everyday Life: The Role of Neuroticism in Exposure and Reactivity to Daily Stressors, *Journal of Personality*, 59, 355 - 386.
- Breslin F. C., O'Keeffe M. K., Burrell L., Ratliff-Crain J., Baum A. (1995), The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on Daily Alcohol Use in Women, *Addictive Behaviors*, 20, 141-147.
- Camatta C. D., Nagoshi C. T. (1995), Stress, Depression, Irrational Beliefs, and Alcohol Use and Problems in a College Sample,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9, 142-146.
- Carpenter K., Hasin D. (1998), A Prospective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asons for Drinking and DSM-IV Alcohol Use Disorders, *Addictive Behaviors*, 23, 41-46.
- Carver C. S., Scheier M. F.,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ho Y. I. (2014), The Moderation and Mediation Analysis Using Regression, 2014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 Choi H. R. (1986), Str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Cognitive-behavioral Counseling,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P. H. (2004), The Differ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Coping Types According to MMTIC Personality Types and Stress Level, Master's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 Colder C. R. (2001), Life Stress, Physiological and Subjective Indexe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Coping Reasons for Drinking: Is There Evidence for a Self-medication Model of Alcohol Use? *Psychological Addictive Behavior*, 15, 237-245.
- Colder C. R., Chassin L. (1993), The Stress and Negative Affect Model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Behavioral Undercontro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4, 326-333.
- Commercial Auto Mobile Index Statu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http://tmacs.ts2020.kr>), [2015.02.03.]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Mudar P. (1992), Stress and Alcohol Us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152.
- Cox W. M. (1987),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H. T. Blane & K. E.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ress.
- Eysenck H. J., Eysenck M. W. (1985),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A Natural Science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Folkman S.,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Study of Emotion an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21, 219-239.
- Folkman S.,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s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Holahan C. J. (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89-395.
- Holmes T. H.,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 - 218.
- Horowitz M., Schaefer C., Hiroto D., Wilner N., Levin B. (1977), Life Even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Presump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9, 413-431.
- Hussong A. M. (2003), Further Refining the Stress-coping Model of Alcohol Involvement, *Addictive Behaviors*, 28, 1515-1522.
- Jelinek J., Morf M. E. (1995), Accounting for Variance Shared by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tress-related Variables: A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Psychological Reports*, 76, 959 - 962.
- Kardum I., Hudek-Knezevic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Eysenck's Personality Traits, Coping Styles and Moo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341-350.
- Kardum I., Krapic N. (2001), Personality Traits, Stressful Life Events, and Coping Styles in Early

-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503-515.
- Kim B. S., Kim K. B., Lee C. K. (1995), The Preliminary Study of the Korean Adolescent Drug Addiction Screening Test(KOADAST)(II), Psychiatry Investigation, 129, 1862-1874.
- Kim J. H. (1987), Relation of Perceived Stress, Cognitive Set, and Coping Behavior to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Y. B. (2007), The Effects of Stress and Coping Strategy on Drink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 Master's Dissertation, Hanseo Univ.
-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14),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DB (교통안전공단 국회보고자료).
- Laurent J., Catanzaro S. J., Callan M. K. (1997), Stress, Alcohol-related Expectancies and Coping Preferences: A Replication with Adolescents of the Cooper et al. (1992) model,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8, 644-651.
- Lazarus R. S. (1990), Theory-based Stress Measurement, Psychological Inquiry, 1, 3-13.
- Lazarus R. S.,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e O. J. (2002),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Stress Coping Styles in High School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 487-501.
- Levine J. D. (1990), Alcoholism: A Bio-psycho-social Approach,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rporation.
- McCrae R. R., Costa P. T. (1986), Clinical Assessment Can Benefit from Recent Advances in Personality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1, 1001-1003.
- O'Hare T., Sherrer M. V. (2000), Co-occurring Stress and Substance Abuse in College First Offender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3, 29-44.
- Park C. L., Armeli S., Tennen H. (2004), The Daily Stress and Coping Process and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5, 126-135.
- Park D. G., Park E. M. (2010a), A Study on Realities of Drunken Driving and Trigger Fa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7, 1-17.
- Park D. G., Park E. M. (2010b), Effect of Drinking Motivation on Drunken Driving Behaviors, 2010 Convention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Rohsenow D. J. (1982), Control over Interpersonal Evaluation and alcohol Consumption in male social drinkers, Addictive Behaviors, 7, 113-121.
- Roth S., Cohen L. J. (1986), Approach, avoidance, and coping with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1, 813-819.
- Sarason G., Johnson J. H., Siegel J. 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elye H. (1982),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he Stress Concept, In Goldberger, L., & Brezenitz, S.(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 Shin H. W. (1999), The Effect of Personality on Drinking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1), 105-122.
- Terry D. J., Hynes G. J. (1998), Adjustment to a Low Control Situation: Reexamining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078-1092.
- Uehara T., Sakado K., Sakado M., Sato T., Someya T. (1999),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Personality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68, 26-30.
- Vollrath M., Torgen S., Alnas R. (1995), Personality as Long-term Predictor of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 367-378.
- ✉ 주 작 성 자 : 정은경
- ✉ 교 신 저 자 : 손영우
- ✉ 논문투고일 : 2015. 4. 8
- ✉ 논문심사일 : 2015. 6. 12 (1차)
2015. 10. 26 (2차)
2015. 11. 19 (3차)
- ✉ 심사판정일 : 2015. 11. 19
- ✉ 반론접수기한 : 2016. 4. 30
- ✉ 3인 익명 심사필
- ✉ 1인 abstract 교정필